‘2020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 힘 모은다

순천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은 최근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 주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문화재단·지역문화진흥원, 공동 주관처 업무협약

프로그램 기획·운영, 사회·경제 효과 평가 연구 협력

순천문화재단은 최근 지역문화진흥원과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 주관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순천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이다.

순천문화재단과 지역문화진흥원은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 기획 및 운영 전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개최 성과 및 사회·경제적 효과성 평가 연구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과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 공동 주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은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성공 개최와 함께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 특성이 반영돼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공유와 교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문화재단 이사장도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다양한 생활문화 동호회의 기량과 경험을 공유하는 전국생활문화축제를 함께 주관하는 기회가 마련돼 기쁘다”며 “대한민국 생태문화도시 순천의 다양한 장점을 살려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올해 초 순천시가 최종 개최지로 선정돼 오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국생활문화인 1만여 명이 참가해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11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2차 심사에서 최종 4개 기관이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순천문화재단은 창립 6개월 만에 2020년 전국생활문화축제 유치에 도전해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순천=남정민 기자

순천 해룡 신대도시텃밭

7-10일 분양 신청 접수

순천시가 신대도시농업공원 일원에 도시텃밭을 조성, 분양한다. 올해 분양하는 텃밭은 198구좌로 세대 당 1구좌(10㎡)를 신청할 수 있고 연간 3만5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2일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신대도시텃밭(해룡면 신대리 2136) 분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해온 신대도시농업공원(해룡면 신대리 2137)이 지난해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부지로 결정됨에 따라 인근 부지에 새롭게 신대도시텃밭을 조성한다. 개장(4월 25일) 전 텃밭을 분양함으로써 개장과 동시에 텃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올해 분양하는 텃밭은 180구좌로 세대 당 1구좌(10㎡)를 신청할 수 있고 연간 3만5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비닐 등 친환경 농사법을 실천해야 하며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텃밭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jhjmo mo@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이메일 접수 위주로 추진하고 이메일 접수가 힘든 경우 오는 10일 하루 동안 방문 접수(해룡면 신대행정복합시설 2층)도 받을 계획이다.(문의 순천시 농업정책과 도시농업팀 061-749-8685·8678)

/순천=남정민 기자

순천시, 인구수 전남 제1의 도시 ‘우뚝’

28만1천873명…여수보다 79명 많아

이르면 연내 호남 3대 도시 등극 전망

순천시가 인구수에서 여수를 제치고 전남 제1의 도시로 우뚝 섰다.

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3월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는 28만1천873명으로 여수시 28만1천794명보다 79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전남 동부권에서는 인근 지자체 사이에 인구 빼가기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했다. 이번 인구통계 자료를 보면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말 보다 5천378명이 감소한 15만1천372명이고 여수시는 992명 감소했다. 반면,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말 보다 2천275명 증가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인구수에서 전남 제1의 도시로 등극 된 것에 대해 시민과 함께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축하행사는 생략하고 순천시민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순천시민 여러분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중시하는 ‘힐링 도시’라는 점과 지속적인 생태도시를 지향해 온 그 동안의 도시 정책에 기인한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편, 전북 익산시의 3월 말 기준 인구는 28만5천431명으로 순천시보다 3천558명이 많지만 현재와 같은 인구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순천시는 올해 안에 광주, 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남정민 기자

제조업체 10곳 中 8곳 “코로나19로 경영 피해”

순천상의, 기업경기 조사…2분기도 부정적 전망

순천지역 제조업체들이 2분기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순천상공회의소는 최근 관내(순천·구례·보성)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도 2/4분기 기업 경기 전망과 코로나19가 지역기업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BSI 전망지수는 ‘73’으로 조사돼 체감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분석됐고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82)과 영업이익(68)은 감소하고 설비투자(86) 또한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활동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81.8%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 애로사항으로 ‘내수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와 ‘중국산 부품 자재 조달의 어려움’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얼마나 감소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4.3%가 2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피해를 과거와 비교하는 질문에는 응답기업 모두 전염병인 메르스와 사스보다 ‘유사’하거나 ‘더 크다’고 답한 반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서는 ‘유사’하거나 ‘더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코로나19가 올해의 고용과 투자에 미칠 영향을 예상하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9%가 ‘계획보다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계획대로 실행한다’는 기업은 36%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66.7%가 ‘금융·세제 지원’과 ‘내수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꼽았다.

순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회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200 사이로 표시된다. 100을 넘으면 이번 분기 경기가 전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반대다.

/순천=남정민 기자

곡성군, 친환경 쌀 가공산업 확대 추진

2년간 10억 투입 고도화 단지 육성 시범사업

곡성군은 2일 “들녘 단위 규모화 친환경쌀 산업 고도화 단지 육성사업(이하 들녘단지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곡성군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 관련 신기술 시범사업인 들녘단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동안 단순 백미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 쌀 산업을 가공산업으로 확대해 쌀 소비를 다양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2년 동안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30여 일간 사업을 추진할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개 업체가 응모했다.

농업기술센터는 내·외부 심사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발표심사를 진행했고 농업기술분과 심의를 거쳐 들녘 단위 규모화 친환경쌀 산업고도화 단지 육성 사업자로 석곡농협을 확정했다.

석곡농협은 시범사업 취지에 맞고 백세미 판매 경험과 탄탄한 유통망, 사업 추진 효과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곡성군은 석곡농협과 함께 올해 총 232ha 면적으로 단지를 구성하고 백세미를 이용한 누룽지 가공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산단지는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일대로 유기 재배 152ha, 전환기 및 무농약 재배 80ha이며 주로 유기농 단지로 이뤄져 있다.

곡성군은 사업 내실화를 위해 농진청, 전남농업기술원과 협력해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해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점차 유색미를 활용한 가공품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철현 기자